

# 우리가 가꾸는 이상(理想) 실현



교장 민병준

우리 인항 고교는 개교한 지 10년 넘게 성상을 쌓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입니다. 4천여 근로자들의 땀과 정성의 결실로 이루어진 우리 인항은 숭고한 건학 이념을 받들어 성실과 봉사와 효행의 마음으로 명실공히 인천 사학의 명문 고교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 정상을 한 발에 정복할 수 없듯이 행복도 그렇게 단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주어진 일에 노력하는 자에게만, 그것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행복을 맞이하는 지름길입니다.

위인들은 업적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위인들은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한 존재라고 일컬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위인들만이 이상을 추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상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인들의 이상이 일반 사람들의 그것보다 유달리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업적을 통해 그들의 속내를 세상에 드러내 놓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 우리는 이상을 가슴 속에 묻어 둔 채 안으로만 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가슴을 채우는 이상은 말 그대로 순백색으로 빛나며 저 높은 하늘로 날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은 이상과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이상과는 달리 어두운 잿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고 그마저도 자꾸만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껏 이 역사를 이끌어 온 힘은

이상이 아니었을까요? 현실과 타협하고 거기에 안주하려 했다면 어떻게 지금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현실의 벽이 높고 험하였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이상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상이 있을 수 있었고 더 나은 앞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 빛나는 많은 위인들 역시 그들의 이상을 세상에 이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상이 함께 어울려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기에 오늘의 세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상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거대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이 더 나은 앞날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 즐거라 생각합니다. 저마다 가슴 속에 이상을 가득 담고 그것을 현실 속에 실현할 수 있는 멋진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옮겨 보며 너무 큰 걸음으로 욕심을 내지 말고 작은 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정성을 기울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

러다 보면 행복은 어디에나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마치 계단을 밟듯이 하나하나 걸다 보면 어느새 크나큰 행복을 가슴 가득히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시기를 준비하는 인향인 여러분! 가슴에 이상을 가득 품고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한 그대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향이 있기까지 여러모로 힘써 주신 4천여 근로 노조원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드리며 인향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

새롭게 다가오는  
시기를 준비하는 인향인  
여러분! 가슴에 이상을 가득  
품고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한 그대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